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3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지름(50x50) • 이가은

* 이가은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3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이승에서 저승으로
	08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고, 그리도 깨끗했던"
스님 평안하소서	11	홍매 보며 짓던 미소 그림습니다
	16	법정이 묻고 성철이 답하다
	20	스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문현철의 병영칼럼	26	소중한 인연, 과분한 사랑
숨어서 피는 꽃	31	10년 만에 돌려받은 행복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35	질문하기
옛날의 금잔디	38	지독한 오해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 법정 스님 6주기 추모판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3월 1일 발행 / 통권 253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이승에서 저승으로

글·법 정(法頂)

향봉(香峰) 노스님이 지난 5월 31일 입적하셨다. 오래 전부터 건강 상태는 안 좋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다. 올해 여든 셋이므로 살 만큼 사셨지만, 갑작스런 죽음에 삶의 덧없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당에서 풀을 뽑다가 넘어져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울에 올라가 계셨는데, 치료가 끝나는데 대로 다시 옛 도량에 돌아와 계시기로 하였는데, 영구차에 실려 시신으로 돌아올 줄이야. 노인의 건강은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어제 오후 염을 하여 입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새삼스레 헤아리게 되었다. 호흡이 멎고 혼이 나가버린 육신

이란 한낱 나무토막만도 못하다는 걸 거듭거듭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 영결식을 치루고 다비(荼毘 : 화장)를 한 뒤 습골(捨骨)하여 그 뼈마저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리고 나면, 한 생애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또 텅 빈 가슴으로 한 아름 안게 될 것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는다. 다른 일이라면 남에게 대행시킬 수도 있지만, 나고 죽는 일만은 그럴 수가 없다. 오로지 혼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저마다 자기 몫의 삶에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 존재의 빛깔과 무게를 혼자서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과 사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선종사(禪宗史)를 들추어 보면 선승들은 살아갈 때에도 저마다 독특한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그 개성에 따라 강한 체취를 남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과 사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살 때에는 삶에 철저히 그 전체를 드러내고, 죽을 때에도 또한 죽음에 철저히 자기 존재를 통째로 드러낸다. 그러니 사는 일이 곧 죽는 일이고, 죽는 일이 곧 사는 일이다. 영원한 회귀(回歸)의 눈으로 보면 죽음도 또한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일상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생과 사의 굴레로부터도 툭툭 털고 일어서려는 것이다. 예전부터 고승들은 입적(入寂)할 때 그의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고려의 보조 스님 같은 분은 복을 쳐대중을 모이게 한 뒤 법상에 올라 설법을 하였다.

“오늘 산승의 목숨이 여러분의 손

아귀에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기니 옆으로 끝든지 거꾸로 세우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주장자(拄杖子)로 법상을 세 번 치고 “천 가지 만 가지 것이 모두 여기에 있느니라.” 하고는 그대로 가셨다고 한다.

[신심명(信心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승찬(僧璨) 대사 같은 분은 제자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눈 뒤, 꺾충 뛰어 문 앞의 버들가지를 쥔 채 그대로 열반에 들기도 한다.

분양(汾陽)의 선소(善旻) 스님은 그 자리에 선 채 입적을 했다. 그는 고을의 지방장관으로부터 세 번이나 초대 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사절한다. 그러나 끝까지 버틸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에는 승낙을 한다. ‘내가 가기는 하지만 그 길이 다릅니다. 먼저 가도록 하시오.’ 맞으러 온 사신을 보내고 나서 그대로 선 채 입적. 그는 수행자로서 끝까지 자기 분수를 지키고 세속의 권력과 야합하지 않았다. 권력의 실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탁한 시류에 섞이어
시들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써 살
길을 택했던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현재 고려대장
경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선종의 역사
서인 [조당집(祖堂集)]에 등은 봉(巒隱
峰) 선사에 대한 일화가 실려 있다. 선
사는 오대산에 들어가 성자인 금강굴
앞에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입
적을 했다. 사람들은 성스러운 굴의
순례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다른 곳
으로 옮겨 다비를 하려고 했지만 그
주검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일찍이
그의 누이동생 한 사람이 출가하여
여승이 되었는데, 자기 오라버니의 유
별난 행적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가
까이 다가와서 나무랐다.

“오라버니는 살아서도 세상일에 어
깃장만 놓더니 죽은 후에까지 세상
인정에 따르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말하고 손으로 밀어 쓰러뜨
리니, 그제야 대중이 시신을 옮기어
다비를 할 수 있었고, 탑을 북대의 정
상에 세웠다. 그는 평생 동안 다음과

같은 시(偈頌) 한 편을 남겼을 뿐이다.
외출 거문고를 그대 위해 통기노라.
송백은 항시 푸르러 추위를 겁내
지 않고

금과 돌은 친하지만 그 성질은 전
혀 다르다.

그대의 판단에 맡기니 한번 시험해
보라.

임제(臨濟) 선사와 같은 시대에 살
았던 보화(普化) 스님에 대한 행적은
[조당집] 17권에 실려 있다. 그는 어느
날 어깨에 관을 메고 거리를 돌아다
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직인사
를 한다.

“나도 이제는 그만 이승에서 떠나
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의 뒤
를 따랐다. 그는 동쪽 문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좋지 않으니 내일 남문 밖
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그는 죽지 않았다. 사
흘째는 서문 밖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아 따르던 수가 몇

사람 안 되었다. 나흘째 되는 날 북문
밖으로 나오자 이제는 아무도 그의 뒤
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이날
에야 스스로 관 뚜껑을 닫고 입적하였
다. 뒤늦게 달려온 사람들이 관을 열
자 시신은 간 데가 없고, 공중에서 요
령 소리만 은은히 울려왔다고 한다.

오늘같이 닳아진 세상에서 상식의
자로는 쥘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지
만,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
는 일들이다. 한결같이 생사의 굴레에
서 훨훨 벗어난 자유인의 경지다. 앞
거나 늑거나 서거나 거꾸로 물구나무
를 선 채 간다고 해서 그 생애에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물론 아니다.
그것은 한낱 지역적인 이야기이다. 살
아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살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가 보다 소중한 것이다.

래서 어떤 스승은 마지막 유언을 간청
한 제자에게, 내가 살아서 지금까지
말한 그것이 곧 내 유언이라고 했다.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현재
의 우리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
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죽음은 모
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새 길을 찾아 떠나는 길목이라고, 여
기에서 고별의 사상이 움튼다. 무거
운 장례의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향봉 노사가 강원도 명주군 연곡의
백운사에 계실 때 나는 한 해에 두어
차례씩 문안을 드리러 다녀오곤 했었
다. 돌아올 때마다 노사는 뜰가의 등
성이에 올라서서 내 자취가 멀리 산
자락에 가릴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다. 잊을 수 없는 모습이다. 1983

- 물소리 바람소리 중에서

법정 스님 6주기 추모법회

법정 스님 6주기 추모법회가 3월 4일(음. 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맑고 향기롭게」근본
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생전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조촐하고 간소하게 봉행되오니, 잠시
잇고 지낸 '무소유' 정신을 자각해보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고, 그리도 꽃꽂았던”

글 • 송월주

누구를 부를까
 가까이는 부를 만한 이웃이 없고
 멀리 있는 벗은 올 수가 없는데...
 지난밤에는 열기에 떠 줄곧 헛소리를 친 듯
 한데 무슨 말을 했을까
 앓을 때에야 새삼스레 혼자임을 느끼는가
 성할 때에도 늘 혼자인 것을
 또 열이 오르네
 사지에는 보오얏게 토우(土雨)가 내리고
 가슴은 마냥 가파른 고갯길
 이러다가 육신은 죽어가는 것이겠지...
 바하를 듣고 싶다
 그중에도 '특카타와 후우가' D단조를...

법정 스님(1932~2010)이 1965년 불교신문에 실은 시 '병상에서'의 일부다. 스님은 산문으로 필명을 얻었지만 시재(詩才) 역시 뛰어났다. 어느

날 찾아온 육신의 고통, 그 이상의 수행자의 외로움, 가슴 한구석에 삭혀둔 낭만까지 물씬 풍긴다.

무소유의 삶에 말과 글 빚조차 저어했던 스님의 생전 일거수일투족.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 가는 길을 더 아쉬워했다. 청빈의 삶과 사람들에게 사색의 시간을 준 글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으리라. 그러나 절집 일부의 세평에서는 다른 말도 있었다.

깔끔하고 괴팍하다, 고고한 것이 지나쳐 외골수다, 아는 것 많으나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일부의 사실도 있고 시샘도 있을지 모른다. 스님의 법명을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더 잘 보기 위해 옹기이니 이해를 바란다.

스님은 주지나 총무원 소임과는 거리가 먼 체질이였다.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있다. 스님이 총무원 소임을 맡은 적이 있다. 한나절이나 될까. 1960년대 초반 경산 스님이 총무부장, 내가 교무국장을 하던 시절 스님은 문화국장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무실의 움짱달걀 못하게 붙은 책상 하며 주변의 소란을 못마땅해 하더니 “못 하겠다”며 훌쩍 가버렸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처럼 법정 스님은 번잡한 일은 질색이었지만 글과 공부를 만나면 빛이 났다. 우리 불교사에서 한글 경전시대를 개척한 운허 스님(1892~1980)을 도와 역경 편찬에 공을 들였다. 1970년대 불교신문 논설위원과 주필을 지내던 스님은 말 그대로 펜촉처럼 날카로웠다. 젊은 스님들이 '주지병(病)' '대학병(病)'에 걸렸거나 베트남 파병을 비판하는 등 스님 글이 필화(筆禍)로 갈 조짐이 보이던 주변 스님들이 이를 무마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스님이 세속 나이로 세 살 위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가해 도반으로 지냈다. 출가 초기에는 선학원과 선방, 사찰에서 이따금 마주쳤지만 살면서 점점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다.

“월주 스님이 전두환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법정 스님의 말을 전해 듣기는 했다.

“법정 스님과 가깝게 지냈는데 이제 전화도 없다”는 강원용 목사의 푸념도 기억난다. 강 목사가 국정자문회의에 참여한 이후 연락이 끊긴 모양이다.

생전 전화와 담을 쌓고 지낸 스님은 1994년 내가 총무원장이 되자 전화를 했다. 축하한다는 짧은 전화였다. 스님과 다시 조우한 것은 1997년 12월 요정이었던 서울 성북동의 대원각이 길상사로 다시 태어나는 개원 법회 때였다. 김수환 추기경도 참석했고 나는 총무원장 자격으로 갔다. 길상사가 도심 사찰로 포교와 문화의 중심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과 나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 법회의 인연을 끝으로 스님은 길상사 법회와 글쓰기 외에는 산중에 은거하며 수행했다. 나는 1998년 총무원장 선거 뒤 종단 개혁보다는 사회봉사와 자비행을 통한 '깨달음의 사회화'에 나섰다.

2010년 3월 11일 스님이 입적한 날, 나는 지구촌공생회 활동을 위해 미얀마에 머무르고 있었다. KBS 라디오의 요청으로 스님의 삶에 대해 15분간 이야기를 했다.

스님의 곳곳한 면을 굳이 들춘 것은 길상사 주지와 회주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차마 내치지 못한 것은 인연과 원력 탓이다. 되새길 만한 일화가 있다. 부처님 시기에 제자들의 다툼은 있었다. 이에 실망한 부처님이 제자들의 걸을 떠나자 신도는 물론이고 시주도 줄어 생활이 어렵게 됐다. 제자들은 반성하고 다시 무릎을 조아렸다.

길상사가 길상사인 것은 법정 스님의 그림자 때문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스님의 뜻인가를 잘 새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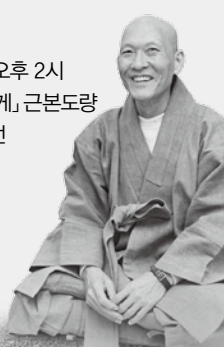
스님, 차 한잔 나누며 과거지사를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 출처 : 동아일보 / 나의 삶 나의 길 / 송월주 회고록(2011년 11월)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시낭송 음악회**

- 그대 만나러 가는 길에

3월 6일(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흥매 보며 짓던 미소 그림습니다

글 • 윤청광

“나의 전 재산을 스님께 시주할 테니 받아주세요.”

“나는 받을 수 없으니 다른 분한테 기증하십시오.”

한국 2대 요정 중 하나였던 서울 ‘대원각’의 주인 김영한 여사가 『무소유』라는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감동, 싹가 “천억 원을 호가한다”는 성북동의 땅과 건물을 생면부지의 스님께 “조건 없이 시주할 테니 절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해서 “받으세요” “못 받겠다”하는 희한한 실랑이가 무려 10년간 계속되었고 결국 스님의 무소유 고집에 김영한 여사가 굴복, 전 재산을 송광사에 기증함으로써 스님은 스님대로 ‘무소유’ 고집을 지키시고, 김 여사는 김 여사대로 요정을 절로 만드는 소원을 이

루어 1997년 마침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동서고금의 역사상 전무후무할 이 전설 같은 10년 실랑이를 지켜보면서 나는 참으로 법정 스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었다.

내가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나 본 것은 1972년 늦가을이었다. 지금의 서울 종로 수송동에 동서문화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송재운(宋在雲) 사장이 편집부장인 나에게 아래층 ‘다정다방’으로 내려가자는 것이었다. 당시 꽤 유명세를 타고 있던 ‘털보’ 서경수 교수가 법정 스님을 모시고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법정 스님의 수상집(隨想集) 출판

에 관해 의논하지는 것이었다.

이때 처음 만나 뵈고 동서문화원에서 내드린 법정 스님의 최초의 책이 바로 『영혼의 모음』이라는 수상집이었다.

그 후 20년 세월이 흐른 1993년 당시, 나는 '책의 해' 조직위원회의 기획·홍보 책임을 맡고 종로구 사간동에 있는 출판문화회관에 매일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 옆에 있는 법련사의 불일출판사 청학 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정 스님께서 만나자고 하신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는데 법정 스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다.

“그동안 내가 시주의 은혜만 입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밥값은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을 맑히는 일을 무엇인가 해야겠으니,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세요.”

까다롭고 엄격하고, 대쪽 같고 칼날 같아서 번거로운 일 싫어하시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께서

이날 밤 우리에게 내려주신 화두(話頭)는 여섯 글자 '맑고 향기롭게'였다.

무슨 운동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벌어나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화두를 받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끙끙대며 만들어진 것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세 가지 목표 아래 아홉 가지 실천덕목을 설정해서 청학 스님을 통해 법정 스님께 제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먼.” 하시면서 스님이 인가하여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994년 겨울이었다. 그해 처음으로 서울 순화동에 있는 중앙일보사의 '호암아트홀'을 빌려 제1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이날 밤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맑고 향기롭게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순서가 있어서 부득이 법

정 스님께서 무대에 올라가 장학생으로 선별된 중고등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한 말씀 하셨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스님?”

“늙은 중 밤무대까지 뛰게 하니 말입니다.”

“예에? 밤무대요? 아이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밤무대에는 오르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하십시오.”

흔히 법정 스님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고 무서운 스님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님은 당신 스스로에게는 냉혹하리만큼 엄격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적에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포근하기 그지없었다. 찾아온 참배객이 스님께 삼배(三拜)를 올리면 “절은 한번만 하면 됐습니다.” 하고 합장하며 일어서서 더 이상 못하게 만류하였고, 손님이 떠날 때는 언제나 문 밖까지 나가서서 극진히 배웅하셨다.

근 2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스님을 모시고 강원도 춘천에서부터 전주, 광주, 창원, 부산, 대구, 청주, 강화 등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법회를 열었는데, 그야말로 스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였다.

한번은 내가 운전을 하고 내 차로 스님을 모시고 춘천법회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내 차가 소형차라 자리가 비좁았다. 그래서 당연히 스님을 뒷자리에 모시려고 뒷문을 열어드렸는데 한사코 앞자리인 운전석 옆자리에 앉으시겠다는 것이었다.

“어이구 스님, 뒷자리에 편히 앉아서 가셔야지 춘천까지는 장거리입니다.”

“허허, 무슨 말이요? 오녀가 운전하는 차는 앞자리가 상석이라는 것쯤 나도 아는데, 나를 왜 굳이 상석에 안 앉히고 말석에 앉히려려고 그러십니까? 나도 상석에 좀 앉아서 갑시다.”

스님은 기어이 그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신 채 꼼짝도 않으셨다. 법회를 위해 또 다른 지방도시

가셨을 때였다. 공항에서 스님을 모시고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방 불자들이 영접을 나와 있었는데 스님을 극진히 모시기 위해 최고급 승용차인 벤츠를 대기시켜놓고 스님을 벤츠로 안내했다. 그때 스님께서 나를 불렀다.

“우리 저 차 타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승합차 타고 갑시다.”

스님은 기어이 일행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셨다. 지극정성 잘 모시려 했던 신도님께 우리가 얼마나 죄송했던지 모를 지경이었다.

“맑고 향기롭게” 이사회가 있을 적이나 지방 법회 때에는 스님을 모시고 공양을 함께 들게 되는데 재가자들에게는 곡차도 마시게 허용하시고, 불고기나 생선회 먹는 것도 나무라지 않으셨다.

스님은 늘 말씀하셨다.

“여럿이 먹는 게 식사요 공양이지, 혼자 먹는 건 급유야, 급유! 기름 떨어진 자동차에 기름 넣는 급유라구.”

잔한 마음으로 재가자들끼리만 곡차를 마시고 생선회를 먹기가 죄송스러워서 빈말로라도 스님께 한마디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스님, 약으로 아시고 곡차 한 잔만 드시지요.” 하거나 “약으로 아시고 회 한 점 드시지요.” 하면 스님께서서는 웃으시면서 늘 같은 대답을 해주셨다.

“나는 전생에 많이 마셔 봤고, 전생에 고기도 회도 많이 먹어 봤으니까 전생에 못 잡수신 여러분들이나 많이 드시오.”

그뿐만이 아니었다. 불교 종단이 어려웠을 때 뜻있는 스님들이 법정 스님께 찾아와서 종단의 중책을 맡아 바로 세워 주십사 간청을 한 일이 있었다. 그때 스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중 감투? 그거 전생에 다 써봤는데 쓸 만한 게 못되더라구. 못써보신 분들이나 쓰시라고 그러시오.”

평생토록 주지 감투 한 번도 안 쓰신 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셨다.

당신께서는 술 한 방울 입에 대신

일이 없는 스님이지만, 해마다 이른 봄이면 손수 차를 운전하고 남쪽 땅 섬진강, 광양까지 매화꽃 맞이하러 가셨던 길에 매실주 직접 사서 소포로 보내주셨던 법정 스님.

요양 중이던 제주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당신은 이미 다 짐작하셨던 것일까. 스님께서서는 연명을 위한 치료는 정중히, 그리고 결연하게 사양하셨다. 지극정성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의 간곡한 권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연명을 위한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극정성 보살피준 의료진과 간병해 준 보살들, 수많은 불자들과 독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에게도 한 가지, 한가지, 분명히 이르셨다.

“...관을 짜지 말라, 승복이면 죽하니 수의를 입히지 말라...장례의식을 치르지 말고 간소하게 다비하라...”

피아니스트 노영심 씨가 송광사 불일암에서 찍어온 흥매화 가지에

빠알간 꽃잎 하나가 막 피어나고 있어서 분당 보살님이 그 꽃을 스님께 보여 드렸다.

“스님, 꽃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빠알간 매화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팔을 들어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을 매화에 갖다 대시었다.

‘내가 불일암에 못 가니, 매화 네가 여기까지 와 주었구나’ 하고 매화에 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몇 달 아니 일 년쯤은 더 견디어 주실지도 모른다. 애써 그렇게 기대하면서 병실을 나셨는데 그 모습이 살아계신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아! 아, 정말 스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데...

* 출처 : 법보신문 / 곁에서 본 법정 스님 中 / 2010년 3월

법정이 묻고 성철이 답하다

법정 큰스님께서서는 간단하게 무엇을 불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철 긴 말은 나중에 하고 간단히 한마디 하지요. '불교(佛敎)에서 불(佛)은 부처님이고, '교(敎)'는 가르침이니,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불(佛)'은 인도말로 붓다(Budda)이고, '깨친 사람'이라는 뜻이니, 이 세상 모든 이치인 일체만법(一切萬法)의 근본 자체를 원만하게 깨친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겠지요.

불교는 일체만법을 깨친다(覺, 각)는 것에 근본 의미가 있으니 '깨친다'는 데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서 불교를 논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교가 아닙니다.

법정 불교의 근본 생명선이 '깨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우리에게 일체만법의 근본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성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탄식하며 말씀 하셨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여래와 같은 지혜 덕상이 있건마는 분별망상에 집착하여 깨닫지 못하는구나.

(〈화엄경〉 권5)

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인류에게 기여한 최대의 공헌이라고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그전

에도 인간이 절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학자나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명백하게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무엇이나?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바로 깨쳐서 우주 만법의 근본을 바로 알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님 자기와 똑같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 능력만 완전히 발휘하면 모두가 다 절대자이고 부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에 있는 인간의 원래 근본 능력을 부처님이 처음 인류에게 알리고 참신 기하고 신기하다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중생이 근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집착으로 인해 사물의 본디 모습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별망상 때문에 이 능력을 깨

치지 못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 부분을 크게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같은 능력, 절대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부처님의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참으로 큰 대발견이라고 철학자들이 다 탄복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말 사람이……. 사람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성철 내가 자꾸 깨친다 깨친다 하는 것은 사람이 그런 깨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만날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 밑에 금이 많이 있는 줄 알면, 거기에 금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땅을 파면 금이나 오지만, 암만 파도 금이 없을 것 같으면 헛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중생에게 부처님과 같은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깨치는 공부를 해도 헛일입니다.

문제는 그 광맥이 사람 사람마다 에 다 있나 없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무진장한 대광맥, 금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진장의 대광맥이 사람 사람 가슴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소개한 것이 불교의 근본 생명선입니다.



법정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많은 생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모든 종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님의 생사관(生死觀)을 듣고 싶습니다.

성철 생사란 모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감으면 캄캄하고, 눈을 뜨면 광명입니다. 본래 생사란 없습니다. 삶

이대로가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일체만법이 해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라는 것은 눈 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눈을 뜨고 보면 자유만 있을 뿐이지 윤회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몸을 받고 또 받고 하여 이어지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윤회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모두 자유다 그 말입니다. 대자유! 눈을 뜨고 볼 때는, 그래서 생사가 곧 해탈이고 생사 이대로가 열반입니다. '생사 곧 해탈'이라고 하겠지요. 현실을 바로 보기만 하면, 마음의 눈만 뜨면 지상이 극락입니다. 이 현실 그대로가!

법정 가령 친족을 버리고, 이 육신을 버릴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할까요? 더 쉬운 말씀으로 풀어 주십시오.

성철 혹 아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생명 자체를 사람에 비유하면 이 육신은 옷이지요. 옷이 떨어져서 벗었다 하여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지요. 70~80년이 되어서 옷이 다 떨어

지면 단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을 아무리 바꿔 입는다 해도 사람은 본래 사람 그대로이니 옷을 따라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옷을 볼 필요도 없고, 옷이 떨어져서 아무리 바꿔 입는다 해도 하나 아까울 것 없고, 평생 입은 옷이니 옷이 오래되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바꿔 입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육신을 옷에 비유하면 결국 영과 육을 구분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나 알고 보면 옷도 또한 절대이니 분리할 것 없습니다. 단지 비유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옷을 갈아입는다 해도 자유로운 생활, 해탈이라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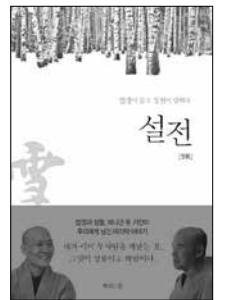
법정 스님께서 다음 생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요?

성철 사실 '다음 생'이란 본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그 한 계성을 잡아서 옷이 다 떨어지고 새

옷을 갈아입을 그 때를 이다음 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 자체에서 볼 때는 옷 떨어졌다고 이다음 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본시 과거도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지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가장 빈천한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상대, 무정물(無情物)까지도 부처님같이 받들고 부처님같이 모실 수 있나 하는 이것이 세세생생의 원이고, 또 그 이상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출처 : 한국 불교의 대표 선승(禪僧)인 성철 스님(1912~1993)과 법정 스님(1932~2010)의 문답을 담은 책 **설전(雪戰)**(책읽는 섬)



스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돌아나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들으라.' 하셨던 법정 스님!
 꽃피는 3월의 봄날, 진영각 뒷마루에 앉아 있으면 스님의 카랑카랑했던 법문도 이제는 시처럼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스님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 가려고 하나 봅니다. 올라오는 길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참새를 보았습니다. 웃음이 지어지면서 법정 스님의 몸짓을 보는 기분에 한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참 수행을 하는 불자로서 더욱더 참선을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진영각 쪽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에 힘 얻어 갑니다. 잘 쉬

었다 갑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애 쓰지 말고 지금의 모습에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머리의 일치, 내려놓음을 깊이 생각하고 갑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오고 싶었던 이곳, 드디어 스님 계시던 흔적을 따라 거닐어 보네요. 담벼락 밑에 의연히 계신 스님의 유골함 앞에서 생전에 스님의 삶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바쁜 생활 속에 잃기 쉬운 내려놓음, 균형감을 늘 상기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생활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우연히 삼청동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길상사를 향하고 있었네요. 성곽 길을 걸어, 걸어서…….

이렇게 스님의 뒷마루에 앉아 스님을 그려봅니다.

무소유란 꼭 필요한 것만 가지라는 스님의 말씀에 언제나 위안을 느끼며 소박한 욕심도 내어보곤 합니다. 2015년 2월 15일, 저의 아들이 회계사 시험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차분히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며, 늘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님을 뵈고 갑니다. 다시 찾을 날 기약하며.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

는 마음의 욕심을 갖고 불도량을 찾는 불자입니다. 무소유·무욕은 아직 제게 먼 곳인가 봅니다. 진정한 무소유·무욕을 깨닫는 날까지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스님께 여쭙 보고 싶은 말은 많으나 어리석은 이 중생은 스님께 여쭙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요즘 따라 삶과 죽음의 차이도 모르겠고 제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최소한 신념을 지키다 보면 답을 만나겠지요?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명을 달리한 사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 모두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음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릴 때 스님이 지으신 책을 주머니에 넣고 항상 가지고 다닌 기억이 나네요. 순수하고 서정적이며 마음이 따뜻한 글귀들이 아직 눈에 선하네요. 참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지금 스님의 의자에 앉아서 글을 적

오니 그때 책을 읽던 제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스님의 법음과 법어는 벗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말법시대에 참 법을 전하고 승가를 외호하는 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스님과 같이 말뚝 남기지 않겠습니다. 빛으로 돌아오소서.

*

어느덧 스님이 머무신 곳, 앞뜰에는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말없이 흐르고 있지만, 스님의 향기는 영원히 진영각을 감싸고 있는 듯합니다. 스님의 빈 의자 옆에 앉아 맑고 향기롭게 그 청정한 마음을 다시 새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

우연히 길상사를 찾았는데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소유'라는 개념은 참 필요하지만 맞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스

님의 말씀, 항상 마음에 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스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저 스스로를 채찍질해봅니다. 덧없는 말을 삼가며 살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

산에는 꽃이 피고 길상사에도 꽃이 활짝, 진영각 뜰에 꽃밭은 아름답고 자연을 벗하고 생각을 깊이 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

스님은 여기 앉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내 삶의 또 한 획을 긋고, 주저앉을 만큼 험겨운 갈증의 시간들을 어제로 보내고 오늘 여기서 스님께 여쭙고 싶다. 오롯이 들려주신 말씀들에서 지금부터 내일을 향해 진중한 삶 걸어가렵니다.

*

작고 소박한 의자에 앉아있으니 스님을 뵈는 듯 마음이 따뜻해집니

다. 올해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이 아주 괴로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힘들어하고 걱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부디 우리 푸름이, 빛도 보지 못하고 간 우리 작은 아기를 잘 보듬어 살피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오는 길에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털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우울함을 털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 요새 되는 일도 없고 몸도 안 좋아져서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여기 오신다고 하셔서 저도 와 봤어요. 여기 처음 오는데 공기도 맑고 숲도 우거지고 도심 속인데도 묘하게 조용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얻고 갑니다.

*

세월호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하

늘에서는 부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인지요? 기대하지 않으면 자신이 강해진다고 누군가 말하셨습니다. 스스로 온전히 빛날 수 있는, 고요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군에 있을 때 스님의 글을 읽고 그렇게 십수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옆에 부인과 배 속에 아이가 있는데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면죄부가 되어 자꾸 욕심이 커집니다. 스님 말씀처럼 다시 비우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끔 들리겠습니다.

*

봄빛으로 물든 환한 날, 길상사를 드디어 외볼 수 있었습니다. 아늑하게 둘러싸여진 이곳이 너무 평화롭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법당에도 들어가 한참을 있었습니다. 기

도하는 곳의 기는 어디를 가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의 얼굴을, 눈빛을 한참을 바라 보았는데 그 맑고, 곧고, 수행의 연륜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스님과 같은 시대를 잠시라도 살 수 있었던 세월에 감사드리며 그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더욱더 크신 어르신께 음성이 그림습니다. 국민들이 맑고 향기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저는 제 마음의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이 파도처럼 세차게 치면 그 감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루고 나니 그다지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는 생각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겹쳐져 생각은 어지럽기만 합

니다. 어제 하루 이래저래 울고 싶은 일이 많이 생겨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려놓지 못해 너무나 괴롭습니다. 가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헛된 욕심으로 괴롭고 또 괴롭고, 그 괴로움은 저를 또 외롭게 만듭니다. 혼자 속으로 삭혀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고 엄마에게 달려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지요.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내 욕심으로 타인을 상처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노력한 만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워내어야 더 큰 생각을 담을 수 있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들을 비워내고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조금 내려놓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북에 있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랑하는 언니를 유방암으로 잃고 오게 되니 마음이 아프지만, 인연과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갑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길 기원합니다.

*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향기로운 생각만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며 참뜻을 새기겠습니다.

*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어떤 미물이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열심히 후회 없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는 죄가 커서 다시 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저질러온 잘못들이 많아 나를 편안하게 두지 않으려 하나봅니다. 잊기도 했고, 잊혀 간다고 생각도 했지만, 두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잘못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나를 봅니다. 제 뉘이겠지요. 이겨 보려합니다. 어제 여기에 오

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아프면 부모님께 죄를 짓는 거구나. 아프지 말아야겠구나. 업보라 생각하여 기꺼이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나아지겠지요.

*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불교 경전 구절입니다. 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둘러보다가 수많은 저서들 가운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를 보다가 아주 오래전 저의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준 불교 경전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 맑고 향기롭게, 그런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 진영각을 다녀간 많은 인연님들의 글 중에서 가려 뽑았습니다. 방명록에 담아놓은 이야기가 스님에게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인연, 과분한 사랑

글 • 문헌철 (조선대 법학과 외래교수)

전남 화순이 고향인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어린 광주로 올라와 전남대학교 사대부고에 진학하였다. 그런데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성적도 좋았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와 눈물로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생각, 부모님을 대신해 정성껏 보살펴 주신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고 성적은 자꾸만 떨어졌다.

그렇게 방황하던 나에게 어느 날 상담선생님이 법정 스님의 『산방한담』이라는 책을 주셨다. 그 책을 하룻밤에 다 읽은 나는, 책을 읽는 동안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글을 읽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던 나는 당시 광주에 새로 생긴 베토벤 클래식 음악 감상실을 자주 들르곤 했는데, 그날도 전원 교향곡을 듣고자 베토벤 음악 감상실을 찾은 날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스님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자세히 보니 법정 스님이신 것 같았다. 나는 두뼘두뼘 스님이 앉아 계시는 테이블로 걸어가서는 무턱대고 ‘혹시 법정 스님 아니십니까? 스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선생님님이 되시지 않고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때만 해도 법정 스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실 분이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당돌한 질문들을 퍼부었고, 스님은 간간한 분 같았지만 따뜻한

모습으로 내 질문에 답을 해주셨다.

광주 남동성당에서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던 나는 고3이 되어 ‘빅토리노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그 날 밤 자취 집을 옮기다 교통사고가 나서 3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다.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나는 무슨 생각에 그랬는지 무작정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탔다. 그리고 명동성당에 가서는 추기경님의 비서 신부님에게 거의 다섯 시간을 농성하다시피 해서는 결국 추기경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나는 추기경님을 뵈자마자 세례받은 날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하느님은 정말 계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여쭙었다. 한 고등학생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무례하게 던진 질문에 너무도 진지하게 그리고 정성껏 나를 맞아 주신 추기경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추기경님을 뵈고 서울에서 광주로 향하던 나는 갑자기 법정 스님 생각

이났다. 다음 날 나는 학교를 가지 않고 스님이 계신 불일암으로 갔다. 그리고는 추기경님께 물었던 것처럼 왜 세례받은 날 하필 교통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사고의 순간을 확 물리쳐 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하여 스님께도 물었다. 스님은 “하느님은 그렇게 만화책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웃으시며 나에게 대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그 후로도 나는 계속 마음이 잡히지 않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을 앓을 때면 스님을 만나러 불일암을 자주 오르내렸다.

경제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던 나는 대학 입학 후 포기하고 있다가 할머니의 독려로 부랴부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조선대학교 법학대학에 입학했다. 할머니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등록금을 만들어 주셨지만, 할머니가 천신만고 끝에 구하신 등록금으로 공부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고

다음 학기도 걱정이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스님을 찾아가 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여쭙었다. 내 이야기를 쫓 듣던 스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그리고 스님은 '너의 천주님께 100일 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 보아라. 그러면 분명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그 후로도 내게 여러 차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인생사에 대하여 아버지 같은 말씀들을 해 주시며 부족한 내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어느 날 스님께서 내게 등록금 고지서를 베토벤 음악 감상실에 두고 가라고 하셨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던 나는 풍족하게 사는 분이 아니신 스님이 얼마 되지 않는 원고료로 내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고자하신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후 음악 감상실의 사장님은 스님의 엄명을 받으셨는지 매 학기 초가 되면 나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가져올 것을 종용하셨고, 3학년이 되

어서는 내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더 추천하라고 하셔서 그 친구들과 함께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스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러 불일암에 가면 스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거나 꾸중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스님의 꾸중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토록 잡히지 않던 마음의 병이 점차 치유되기 시작하였다.

스님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준비를 하던 나는 불일암에 내려갔으나 스님을 뵈 수가 없었다. 강원도 어느 오두막으로 떠나셨다는 것이다. 스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늘어놓으며 때를 쓰고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스님의 수행 정진에 큰 방해만 드렸다는 자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스님께서 나 때문에 불일암을 떠나신 것 같아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스님께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대학 시절 주일

학교 교리교사를 하면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했고, 고시 공부를 접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과정을 마치고 2001년 봄, 지금 근무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는 안경박물관을 만들어 저명인사 안경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불교와 가톨릭 성직자의 안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고교 시절 불쑥 찾아간 기억을 더듬어 김수환 추기경님께 편지를 썼다. 고교 시절 추기경님을 찾아간 이야기, 그때의 당돌했던 고등학생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추기경님이 쓰시던 안경을 우리 대학 박물관에 간직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추기경님은 친필 편지와 함께 평소 쓰시던 안경을 등기소포로 보내 주셨다. 그 이후로 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매년 추기경님께 전해 드렸지만 직접 만나 뵈고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정 스님과 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2003년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광주 강연회에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나는 조심스레 인사를 드렸다. 무뚝뚝하신 스님이셨지만 활짝 미소를 지으시며 내가 사회인으로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해 보아라!" 하시며 훌연히 그 자리를 떠나셨다. 그 이후 내 게으름 탓으로 그간 스님의 소식을 소상히 접할 수 없었고 겨우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나는 갑자기 심한 디스크 증상이 생겨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여 목포로 내려가는 고속열차의 뉴스 자막에서 스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 스님과 내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스님이 폐암으로 심한 통증과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종교를 뛰어넘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그저 믿어 주고 지원해 주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꾸짖어 주셨던 법정 스님. 그러나 이제 대학 시절

그랬던 것처럼 불일암 뒷마루에 앉아 멀리 조계산 자락을 바라보며 스님과 담소를 나누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소망이 되어 버렸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새벽이면 항상 내 이마에 손을 얹고 주님, 우리 현철이. 연타고 권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수십 번 반복하셨다. 전라도 사투리로 좋은 인연 많이 만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호감을 얻게 해달라는 뜻이다. 할머니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소중한 만남과 인연들이 모두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마흔살이 넘은 뒤에야 겨우 깨닫게 되었다.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은 나에게 긍정의 메시지,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내게 닦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대학 강단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 추기경님과 법정 스님, 그리고 할머니는 내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분들이다. 나는 이 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 출처 : 생활성서 2010년 8월호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최근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 고독사, 무연사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아름다운 마무리'기부문화 캠페인과 더불어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독거노인의 생계비와 난방비,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채워진 저금통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중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013-787953(맑고 향기롭게)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사)맑고 향기롭게 02.741-4696

10년 만에 돌려받은 행복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구로동에서 살고 있는 전신마비 여성장애인 한 분이 드라마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화로 들려주었다. 충청도 서산 이웃 마을의 청년과 결혼을 하고 남편 따라 서울로 올라와 구로동에 보금자리를 꾸렸다. 두 사람의 나이는 25세와 26세였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더 할 수 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결혼 3개월 만에 휘청거리고 말았다. 신혼의 단꿈에서 미처 깨어나기도 전 어느 날 옥상에 빨래를 널어두고 감기약을 먹은 후 약 기운에 취해 누워있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비몽사몽으로 옥상으로 올라가 빨래를 걷으려는데 하늘이 빙빙 돈다고 느끼는 순간 옥상에서 거꾸로 떨어져 경추(목뼈)가 부러

져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남편은 부인이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에 정신없이 달려와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부인을 위로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줄게요. 설사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다 해도 당신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발 죽지말고 내 곁에 있어 주세요”라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마음은 서서히 변해갔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던 마음에 ‘저 모습을 보지 않을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의 마음은 먼 곳

으로 떠나가고 있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남편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하였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봤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무슨 수로 죽을 수가 있겠는가? 전신마비 장애보다 더욱 슬펐던 것은 죽을 수 있는 권리마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죽어야 한다는 결심은 더욱 굳어만 갔다. 단식을 하기로 했다. 이를 악물고 음식을 거부했지만, 그의 뜻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껏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 가는 것으로 끝이었다. 기력을 회복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꿈에서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부인, 아기 엄마가 될 텐데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그 소리는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불길이 솟아 오르게 하는 소리였다.

‘임신을 했다니’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정말이나고 되묻기도 했다. 죽고 사는 일이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전신마비 장애인이지만 충분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뛰어넘어야 할 세상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술에 만취해 들어오는 남편의 주사와 시댁 어른들의 미움과 노여움은 극에 달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께서 친정어머니와 오빠를 찾아가 헤어지게 하라고 심한 말을 하는 것은 물론 당장 병원에 가서 유산을 하고 남편과 헤어지라고 소리소리 지를 때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자원활동자들이 목욕하는 일에서부터 병원에 가는 일까지 모든 일을 도와주며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는 뱃속에서 작은 몸짓을 시작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아기의 몸짓이 느껴지면서부터는 어퍼

한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마침내 건강한 남자아기를 낳았다. 전신마비 장애인이 어엿한 엄마가 된 것이다.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 아기를 보고 또 보고 하였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여 입으로 가져가거나 썩근 썩근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되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어떤 수모와 어려움도 극복하리라 다짐하였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하리라 결심하고 자원활동자와 함께 손가락 움직이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 끝도 까딱하지 않았다. 실망과 좌절뿐이었다.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아기의 얼굴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미하지만, 손가락에 자극이 왔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원활동자도 감격으로 목이 메었다. ‘내가 해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더욱 노력하였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마침내 김치를 담그고 김밥도 만

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던 사람이 남편과 아이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치우며 직장과 학교에서 돌아오는 남편과 아이를 기다린다. 멀리 떨어져 있던 남편도 서서히 다가왔다. 남편은 전신마비 장애인 아내가 방바닥에 앉아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도록 싱크대 높이를 낮추어 주었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휠체어 높이만큼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기계도 만들어 주어 누구의 도움 없이도 휠체어에 오르고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헤어지라고 소리 지르던 시댁 어른들도 전날의 일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다른 며느리보다 더 사랑을 기울이게 되었다. 충청도 먼 곳에서 서울에 올라오시면 다른 자식 모두 제쳐두고 그녀의 집으로 와서 전신마비 며느리가 지어주는 식사를 하며 “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네가 집에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

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충청도 서산 까지 전신마비 장애인인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고 동네 사람 부끄러워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 후 시어머님은 “며느리가 보고 싶다”는 말씀을 끝으로 운명하셨다. 그녀로 인해서 미움과 죄책감과 한을 안고 살아오신 시어머님께 큰 죄를 짓고 말았다. 시어머니 영전에 용서를 빌지 못한다면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 결혼할 때 한번 가 보았던 시택을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어 다시 방문하였다. 시어머님은 가셨지만,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택 어른들이 환대를 해주셨다. 시모님이 돌아가신지 1년 후 딸아이까지 낳았다. 딸이 귀한 집안이라 시택 식구 모두의 기쁨이 되었다. 마침내 그녀가 잃어버린 행복을 모두 돌려받았다. 10년이란 긴 세월의 악몽은 끝이 났다.

2015년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및 배분 결과

외로움과 질병으로 온전히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다가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등에 노심초사하는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이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려야할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궁리하였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액은 총 47,302,130원으로 전년 대비 총 금액으로는 1천 1백여만원, 규모면에서는 1.3배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총 47,302,130원 중 28,792,900원은 월간 소식지에 소개되었던 9명의 결연대상자와 해피빈으로 소개된 3명의 결연대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18,509,530원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2016년도 의료비 지원과 결식아웃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금액 100% 전부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본 모임 홈페이지 참조)

이 면을 빌어 법정 스님의 청빈의 가르침을 실천한 많은 기부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 맑고 향기롭게
- 4월부터 진행될 거리모금 캠페인에 함께할 대학생, 청년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질문하기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오늘 출근하는데도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가방 놓치는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앵무새 되기’, 나의 말을 할 때는 ‘느낌 말하기’를 떠올리며 실제 말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위의 말을 듣고 답하는 말: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밀려다니셨군요.’ 혹은 ‘가방을 놓칠 뻔하셨구나.’라고 하면 ‘앵무새 되기’를 잘하신 겁니다. 이 답에 그 사람의 느낌을 붙여주면 더 만족스러운 공감 대화가 됩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출근하기 힘들셨군요.’ 혹은, ‘가방 안 놓치려고 힘 좀 쓰셨겠네요.’ 이렇게 답을 하면 더 많은 대

화가 오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대화에는 아래와 같이 질문으로 말하기를 권합니다.

*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 거예요. →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 나도 지난번에 그랬어요! → 나도 지난번에 그랬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들어보실래요?

* 항상 만원 지하철이 걸리시나 봐요. → 항상 만원 지하철이 걸리시는 건가요?

* 좀 일찍 나오시면 낫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 좀 일찍 나오시면 낫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와 보셨어요?

‘맛지마 니까야’를 읽으면서 놀라는 것 중 하나는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세존입니다. 제지와 신도들은 질문하기 위해서 세존을 뵈었으므로

당연한 것이나, 세존께서도 사소하고 당연한 것도 질문하십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만약 텅 빈 물독이 독대에 놓여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짐을 지고 왔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독에 물을 부을 수 있겠는가?’ 라고 세존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에서 질문하십니다.

질문은 상대의 머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대화를 풍요롭게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질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기발한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IQ와 EQ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명령과 지시를 주로 합니다. 수동적인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 요즈음 교육부에서는 ‘질문 있는 교실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교사들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아

이들을 데리고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면 반복하여주고, 다시 질문하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성실히 대답하고, 모르는 경우 솔직히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니 답하기 어려운걸, 우리 같이 찾아볼까?’라고 하며 같이 성장하는 어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 나온 달님’이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동화에서 공주가 달을 따달라고 하자 왕과 신하들은 당혹해합니다.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달이 얼마나 큰지, 달에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설명하면서 고개를 흔들습니다. 마지막에 어릿광대가 등장하지요. 어릿광대는 공주에게 질문합니다.

“공주님! 달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광대가 물었습니다.

“내 엄지손톱보다 조금 작아. 달님에게 이

렇게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면 가려져서 안 보이는걸.”

“그럼 여기서 달까지가 얼마나 멀다고 생각하세요?” 광대가 물었습니다.

“별로 안 멀어. 저기 창문 밖에 큰 나무 있지? 저 나무보다 높은 곳에 있지도 않아. 보고 있으면 가끔씩 나무 꼭대기에 걸리기도 하던데?” 공주가 말했습니다.

“오~ 공주님 말대로라면 달 따는 건 아주 쉽겠는데요? 좀 일단 제가 나무에 올라가서 달이 꼭대기에 걸리면 따다 드릴게요.”

광대는 그밖에 또 물어볼 거리를 생각해냈습니다.

“달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공주님.” 광대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금이지! 바보야!”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 날 밤, 공주에게 금으로 엄지손톱보다 조금 작은 달을 만들어 준 왕과 신하들은 하늘에 뜬 달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어릿광대는 공주에게 가서 또 질문합니다.

광대가 물었습니다. “공주님, 어떻게 달은 지금 공주님이 목에 걸고 계시는데도 하늘에 떠서 빛나고 있을까요?”

공주가 광대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야, 그것도 모르니? 내 이가 하나 빠지면 그 자리에 새 이가 나잖아, 그치?” 공주가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음... 왕실 정원사가 정원에 핀 꽃을 잘라버려도 그 자리에 새로 꽃이 피잖아.”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해도 없어졌다가도 다시 생기는데, 여태껏 그걸 왜 몰랐을까요?” 광대가 말했습니다.

“달님도 그렇지 뭐. 네가 따다 찢지만 새로 생겼잖아? 내 생각엔 모든 게 다 그런 거 같아.” 공주는 말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광대는 조용히 이불을 당겨 공주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놓인 반찬을 가리키며, ‘이거 아가미 젓인데 먹어볼래?’ 라고 하였더니, 5살 아이가 ‘엄마미 젓도 있어?’라고 물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이의 순수함과 기발함에 놀라고, 기뻐던 일화입니다.

지독한 오해

글 • 윤언덕

어느 유명 사회학자는 결혼을 대략 다섯 가지 측면을 가진 제도로 간주했다.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성(性)과 종족보존 외에 경제적 협력과 정서 및 보험의 기능이 그 내용이다. 다섯 가지 내용 중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결혼은 정서의 제도라는 표현은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가장 실감이 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성한테서 오는 위로와 격려이다. 결혼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삶의 비참함과 고독을 이겨내기 위한 상설(常設)의 상담역, 위로역, 격려역을 갖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

닐까 한다. 인간인 이상 누구나 외로움과 고통을 달고 살아간다. 예술이나 스포츠, 각종 SNS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른이 되어가던 즈음 과연 결혼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던 시절이 있었다. 험난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내 한 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집 귀한 따님을 위하여 아끼고 간수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점점 더해갔다. K 후배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너랑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건 맞지만 3년 이상 사귀어 사귀어 안 보면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인지도 몰랐다. 그러는 사이에 내 삶은 황폐

해져만 갔다. 혼자서 빨래하고 밥해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여 거의 매일 술자리에 어울리는 생활은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였다. 어느 여름날, 출근하다 같은 그룹 계열사에 다니는 큰형을 회사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형은 창원에서 보일러와 프레스를 만드는 중공업 계열 회사의 초임 과장이었는데 서울에 갑자기 출장 온 모양이었다. 전날 회식 때문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타라 나의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갈아입지 않은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형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아래위로 나를 훑어보더니 언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청했다.

어머니와 두 형, 나 그리고 형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형은 해가 가기 전에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개진했다. 하고 다니는 몰골이 한심하니 결혼을 하면 어떻게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나름의 판

단을 한 것 같았다. 형수들도 이와 사람이 있는데 삼촌이 결혼 안 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술씩 거들었다. 그날 밤 K 후배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신도 가족들로부터 비슷한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던 며칠 후 마산에 계신 K 후배 어머니가 부산으로 왕림하여 내 어머니를 만나서 두 분은 한 달 후의 날짜로 결혼 일정을 잡으셨다.

청첩장을 만들고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 이리저리 준비하다 보니 금방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둔 어느 날이었다. 당시 내가 근무하던 회사 사업부의 옆 사무실에는 B 건설이라는 유명 건설회사가 입주해 있었다. 그 회사의 경리 여사원으로 이 아무개라는 아가씨가 있었다. 같은 층에 근무하다 보니 서로 안면이 있어서 주로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어떤 때는 찻잔을 쟁반에 담아다가 나를 만나면 반갑게 한 잔을 건네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서 술을

한잔하자는 제의에 함께 포장마차에도 간 적이 있었다. 우리 사무실의 여사원들과도 꽤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내 자리에 그녀로부터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 바쁘면 퇴근길에 한 번 만날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퇴근이 늦은 관계로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으니 상관없다고 해서 밤 열 시 경 회사 뒤편에서 한참 떨어진 서소문동 중앙일보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만나게 되었다.

포장마차에 들어가니 그녀는 이미 혼자서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마시는 중이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약간 망설이더니 말문을 열었다.

“결혼하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사실인가요?”

“하하, 혼자 살고 싶은데 가족들 성화가 워낙 심해서라…….”

“결혼하실 분과 사귀 지는 오래되었나요?”

“학교 후배인데 3년 정도 되었지요.”

“아……. 사실이었군요. 모든 것이 헛소문이었길 바랐는데…….”

소주를 한 병 더 시킨 그녀는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붓더니 단숨에 원샷 마셔버리고는 가볍게 눈인사를 하더니 계산을 하고 포장마차를 나가버렸다.

왜 저럴까?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 않았다. 악의 없이 베푼 친절이 오해를 만들 수 있고, 필요 이상의 예의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행여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혼인 적령기의 남자는 특히 처신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날이기도 했다.

작년인가, 여름휴가 때 아내와 대만의 타이베이에 여행 가서 그곳 야시장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40대 이후에는 포장마차에 간 기억이 없으니 매우 오랜만에 포장마차에 앉게 된 것이다. 갑자기 결혼 전, 포장마차에서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아내에게 쪽 이야기했다. 그녀

가 나를 짝사랑했는지 아니면 나의 착각인지 알 길이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마음에 계속 걸렸기 때문이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면서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며 놀라워했다.

“어, ‘당신에게도’라니?”

아내의 이야기는 이랬다.

나와 같은 해 대학을 졸업한 아내는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조사기관에 취직하여 1년가량을 근무하던 중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다 주경야독한 끝에 국가 공무원에 합격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내는 매사 입이 무겁고 지나치게 신중한 편이기도 하다.

아내와 관공서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얌전한 노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유달리 아내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일도 제 일처럼 도와주곤 해서 항상 꼬마운 마음이었다고 했다.

드디어 결혼 날짜가 잡히자 부서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려야 했고 당

연히 그 수줍은 노총각에게도 청첩장을 건넸는데 웬지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느껴졌다고 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부서를 복귀했을 때는 그는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고 부서에서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네요. …….” 그런데 묻지도 않는데 내가 결혼할 사람 있다고 먼저 말할 수도 없잖아요. 프리포즈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청첩장을 건넬 때 표정이 밝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짹짹한 느낌은 아닐 텐데 말예요…….”

그런 것 같다. 아내와 나는 비슷한 경험을 한 건데 그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과대망상에 의한 착각인지 실제로 그들에게 본의 아닌 상처를 준 건지 알 길이 없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 참 많지만, 항상 신중해야 맞는 것이 세상살이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2016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창립 이후 23년째(2015년까지 총 553명/총지급액: 약 8억여 원) 매년 선발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은 뛰어난 성적이 아니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고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 일반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학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 ① 추천서
 - 추천서는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추천자 성명, 학생 정보 외 추천 사유
 - 학교 장학담당 또는 행정 담당 선생님의 확인 기재
 - ② 학생 서류
 - 가족관계부,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접수 마감 : **2016년 3월 25일(금) 우표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16년 4월 5일(화)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02)741-4696(총무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장학금 후원계좌 : 외환은행 141-22-01683-9/맑고 향기롭게

2016년 숲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안내

1. 주제 : 숲과 전통시장을 찾아서
 2. 일정 : 4월~7월, 9월~11월 / 첫째 토요일
 3. 예정지(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월 2일 : 경북 공덕산 대승사, 윤희암 - 문경 문경장(산채, 사과, 도자기)
 - 5월 7일 : 강원 함백산 적조암 숲길, 정암사 - 정선 정선장(고추, 황기, 마늘)
 - 6월 4일 : 전북 모악산 김제관아, 금산사 - 김제 원평장(생선, 산지부산물, 고추)
 - 7월 2일 : 충남 상왕산 목초지와 숲, 개심사 - 서산 서산장(어리굴젓, 생강, 마늘)
 - 8월은 휴가철과 더위로 휴식
 - 9월 3일 : 충남 천리포 천리포수목원 - 태안 태안장(마늘, 하훼, 해태)
 - 10월 1일 : 충북 옥순봉 충주호 - 단양 단양장(마늘, 고추, 의류)
 - 11월 5일 : 전남 인의산 법성포, 마린탄타사 - 영광 법성장(굴비, 농축수산물)
 4.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접수 : **3월 9일(수)부터 중앙 사무국으로 전화 접수**
 - 준비물 :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비 준비)
 - 참가비 : **35,000원(점심 식비 포함)**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5. 참가비 환불 원칙
 - * 참가비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하며,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 시 결식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빈번한 취소, 변동을 줄이고자 함)
 - * 접수하실 때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용, 등록된 회원이 아닌 경우)를 꼭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전화 문의하세요.
- 문의, 접수처 : 중앙모임 02-741-4696



녹색 나눔 장터 참가자(팀) 모집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생활 속에서 재사용과 자원순환의 녹색 문화를 공유하고자 작은 녹색 나눔 장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나눔 장터'는 4월에 시작하여 10월까지 넷째 일요일(월 1회 개최 예정)에 길상사 뜨락에서 진행하며, 회원님과 신도님이 즐겁게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으로 펼쳐져 합니다.

장터 참여 품목은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리폼한 소품, 직접 재배한 유기농산물, 수제 천연 화장품, 재고로 남은 환경용품, 불교문화 창작품 등입니다.

개인이 참여할 때는 다른 사람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버룩시장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가는 사전에 접수하여야 하며, 수익금의 20%를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하며,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일회용 용기는 쓰지 않아야 하며, 장터가 끝나고 남은 물건은 기증하거나 잘 챙겨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올해 장터에는 헌 옷과 헌도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

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실 분은 연락해주세요.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안내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대상자 중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봉사자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진인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매주 월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매월 첫째 일요일)

매월 첫째 일요일 진행해오던 모희원(노인요양원)의 농사일과 시설 정비 자원 활동에 봉사 일거리가 많지 않아 2015년 12월로 종료하고, 2016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 활동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랄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회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 녹색장터가 열리지 않는 동안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를 비롯한 친환경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실 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 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의류 리사이클링 소모임 강좌 참가자 모집

가정에서 입지 않는 의류를 재활용하여 생필품으로 재순환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3개월 과정(4~6월 과정 참가자 모집)의 무료 강좌를 매주 금요일 진행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치료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



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2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목, 금요일(3,10,11,17,18,24,25,31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매주 월요일(7,14,21,28일)/오전 10

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2일)/오후 1시30분/사무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9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8,15,22,29일)/세계일화실
- 의류 리사이클링 강좌모임 : 매주 금요일(4,11,18,25일)/세계일화실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전모임(중앙직할)

- 지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2015년도 중앙모임 결산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예산안은 2월 26일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한 후 4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며, 본모임 홈페이지(사업·재무 게시판)에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것입니다.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교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법정 스님 6주기 추모법회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의 가르침을 세상에 남기고 입적하신 지 6주년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뜻을 되새기고자 추모법회를 봉행합니다.

- 일시 : 3월 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
- 동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매일 20가구씩 차례대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 일정

회차	입재	회향
1차	2016-02-10	2016-05-19
2차	2016-05-20	2016-08-27
3차	2016-08-28	2016-12-05
4차	2016-12-06	2017-03-15
5차	2017-03-16	2017-06-23
6차	2017-06-24	2017-10-01
7차	2017-10-02	2018-01-09
8차	2018-01-10	2018-04-19
9차	2018-04-20	2018-07-28
10차	2018-07-29	2018-11-05

천수다라니기도

- 일시 : 3월 5일(토) 오후 6시 / 장소 : 극락전
- 축원비 : 5천원 / 1인당
- 주지스님을 비롯해 전 대중스님이 동참하는 특별한 다라니기도입니다.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3월 2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3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기도

- 일시 : 3월 26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불교입문 32기 수강생 모집

- 개강일 : 3월 9일(수)
- 시간 : 매주 수요일(12주 과정) 주간반 1시 40분/야간반 7시 30분
- 수강료 : 7만 원(교재비 포함)

불교대학 7기 수강생 모집

- 개강일 : 3월 3일(목)
- 시간 : 매주 목요일(1년 2학기제) 주간반 1시 40분/야간반 7시 30분
- 지원자격 : 기초 교육 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제출서류 : 길상사 입학원서, 사진 1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3월 12일(토) 오후 8시 30분
~ 13일(일) 새벽 3시 30분
- 장소 : 극락전

일요특강 '길상사 오감(五感) 자기경영 아카데미'

- 강사 : 정해성(한국웃음임상치료센터 대표)
- 주제 : 쫄쫄쫄쫄한 인간관계의 기술
- 일시 : 3월 27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법정스님6주기 추모법회	3월 4일	오전 9시 50분	설법전
다라니기도	3월 5일	오후 7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3월 12일	오후 8시 30분 ~ 오전 3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3월 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3월 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3월 2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사진·진각

참선을 하는 선원에서는
선실 안팎에 '묵언默言'이라고 쓴 표지가 있다.
말을 말자는 것.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정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와 비를 가리는 일이 있다.
시비를 따지다 보면 집중을 할 수 없다.

선은 순수한 집중인 동시에 철저한 자기 응시이다.
모든 시비와 분별망상을 떠나서만 삼매三昧의 경지에 들 수 있다.

〈무소유·침묵의 의미 중〉

법정 스님 6주기 추모법회

3월 4일(음 1월 26일) 오전 11시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시낭송 음악회
그대 만나러 가는 길에

3월 6일(일) 오후 2시

| 출연진 |

시인 | 한국을 대표하는 신경림 시인의 박형준, 김선우, 박준, 이혜미 시인
클래식 연주 | 유수정·피아노 / 전미숙·소프라노 / 이호중·바리톤 / 이선민·첼로 / 이정희
오보에 / 김병성·대금 / 김화수·음악연출
초청가수 | 권진원 밴드(살다보면, 집으로 가는길, 엄마의 노래)

장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2016년 3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53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 길상사 내
☎ 02)741-4696